



오네시모 선교회

NEWSLETTER

“갈한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므로.”
(빌레몬서 1:10-11)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1 (714)739-9100 Non-Profit ID No. 95-4667736 | 501 C3

2026년 봄

Volume 4

오네시모 2026: 열린 문의 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힘은 부족했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권력이나 영향력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실함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말하는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문은 전략이나 지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시는 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열린 문”***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길, 사역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장의 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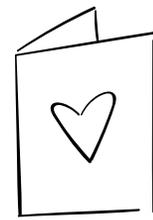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닫히는지를 결정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반대나 한계, 혹은 어떤 저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특히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함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함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이 규모나 가시성, 영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열린 문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문을 지나가는 것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기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며, 앞서 길을 여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으며, 그 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더 큰 목적의 일부입니다.

데릭 목사님의 인사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벽과 거리로 인해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나 오네시모 선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는 ****"열린 문의 해"***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제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옥의 벽이나 쇠사슬, 혹은 인간의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소중하며 우리에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방문하며 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들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이 새로운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장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마음의 자유와 치유, 용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많지 않았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실 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믿고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네시모 가족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서 있으며,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사랑과 기도와 믿음으로,
데릭 임 목사



오네시모 선교회 소식

오네시모 신학교

- 그리스톤 F. 형제님께서 성경 연구 수료 과정을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OST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4월 12일 주일에 살리나스 밸리 주립 교도소를 단체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 저희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방문

- 5월 17일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은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새롭게 주어진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 또한 새로운 사역자로 함께하게 된 켈리 전도사님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 선교교회

- 오네시모 후원회 모임이 연간 사역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 다가오는 6월에는 예방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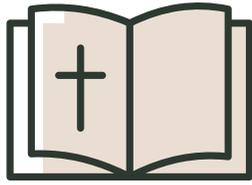
오네시모 후원회

오네시모 선교교회 베라크루스

- 오네시모 선교교회 베라크루스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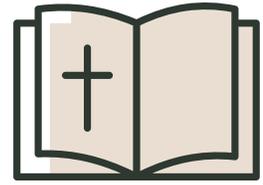
- 새로운 이사회 임원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이사회 임원:
Paul C., Paul J., Byron, Jae, Jason, Danny
- 현재 이사회 임원:
Brandon C, 데릭 목사, 수키 목사, 켈리 전도사
- 자문: 전 권사님, 한 권사님

신임 이사회 임원



설교

임데릭 목사



살아가며,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삶

2026년, “열린 문의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약속을 붙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계시록 3:8**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열린 문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문 앞에서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 앞에서도 그 문을 여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
는 다윗과 골리앗의 강력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서 있
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의 문을 어떻
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열린 문과 거인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
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
았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젊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과소평가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열린 문이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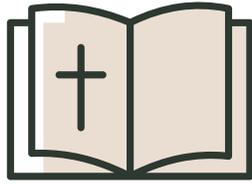
때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전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은 반대와 저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장벽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은 우리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어떤 거인도 그 문
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설교

(계속)

열린 문을 통과하기 위한 세 가지 교훈

1.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베드로전서 2:9

당신은 과거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록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독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일어납니다. 2026년에 열린 문을 통과하기 원한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2.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라:

다윗은 사울의 갑옷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언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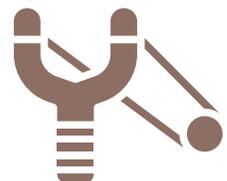
열린 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10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강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거인을 맞서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거인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이나 우울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 수치심,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맞설 때, 싸움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설교

(계속)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로마서 8:31**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마태복음 19:26**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거인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 아니라, 그 싸움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
입니다.

2026년 열린 문의 해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은 힘은 작았지만
믿음이 컸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면의 치유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
니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과 목적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어선 삶을 준비하는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라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빌립보서 4:13**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열린 문의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
니다:

- 첫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
십시오.
- 둘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 셋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인을 맞서십
시오.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운명으
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은 마치 골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빛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문을 여신 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한 형제로부터

오네시모 형제자매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곳 타지에 온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지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기회를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시점에서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담은 제게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시간은 제게 깊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또 다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증을 읽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K. Kim



믿음의 간증: 절망의 깊은 곳에서 들려온 음성

“내가 너를 살리리라”



1. 감옥에서 제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

제가 김석기 목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약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방을 쓰던 한 친구가 성경 공부에 함께 가자며 저를 집회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그곳에서, 제가 목사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 차가운 감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의 냉소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형제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틀 뒤, 저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도소 신문에서 제가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종로 사건’의 주범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이 감옥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서야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고난 이후 찾아온 또 다른 시련: 미국에서의 인정과 한국으로의 귀환

그 이후로, 마치 10년과도 같았던 고통의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상장(Certificate)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에서 17시간에 이르는 긴 노동 시간은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때 뜨거웠던 예배의 삶도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세미한 음성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들조차 이것은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는 매일 세 명에서 네 명이 죽어가는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 때문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들의 말만 의지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4. 고통의 시간에서 기쁨의 시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마치 40년의 연단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주님의 의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시고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살려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퇴 후의 침묵

-김경숙 사모-



저희 부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와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별해서 시작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르셨으니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감옥의 문 앞에 섰을 때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이 형제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만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형제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사역은 삶이 되었으며, 삶은 점점 몸을 소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랜 긴장과 책임 속에서 여러 차례 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신장암 진단을 받고 한쪽 신장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감옥을 오가며 장시간 운전하던 세월 끝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까지만”이라는 말들이 몸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곧 충성의 포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은퇴를 맞이한 첫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기도도 설교처럼 느껴져 성경을 덮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음은 허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지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한 해 동안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사역을 내려놓는 일이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형제들을 찾아가 조용히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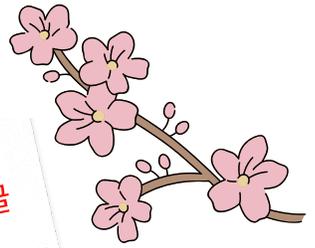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함께 보고 계신 사역자 여러분, 또한 감옥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의 걸음은 여러분의 기도와 동행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의 형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 때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역의 시간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라는 것을요.

주님,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옥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형제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 분명히 보여주소서. 우리의 남은 걸음도 크게 쓰임 받기보다 끝까지 주님 손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 멘



사랑과 격려의 편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님에게”
이 편지 사역은 은퇴하신 김석기 목사님이 한 자매님께 보내셨던 글
입니다. 대상이 된 자매님은 수형 기간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추방
되어, 현재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민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미국 땅에서 자신을 이끄시고 다루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그 경험을 통해 축복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
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신 편지 내용을,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다시금 나누고자 소식지에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
고 형제·자매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키
십시오. 그러면 장담하건대,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은총이 가슴 깊이 임하시
기를 기도합니다.
김석기 목사 드림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자매님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에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이제야 보냅니다.

현재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책과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무척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아주 큰 글씨로 정성껏 써 두었으나,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공들여 쓴 글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허탈함에 한동안 답장 쓰는 일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컴퓨터 글자 크기(폰트)를 18로 크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아, 이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거든, 저의 시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눈을 통해 참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되네요.

저는 32살 젊은 나이에 한국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벌써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며 접대와 술을 많이 접했고, 그로 인해 간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돌아온 계기가 되었지만, 간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가벼운 수술이라지만, 그때만 해도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술 후 38년간 아무 탈 없이 사역해왔는데, 미국에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8년 전 삽입한 렌즈가 이탈되어 이를 제거(Lens removal)하려 했으나, 과거의 수술 자국이 너무 험해 렌즈를 봉합할 자리가 눈에 남아있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사들 말로는, 터진 옷을 꿰맬 때 제대로 꿰맸어야 나중에 다시 터져도 수선할 자리가 있는데, 제 눈은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손을 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쪽 눈 도합 8번의 수술을 받았고, 왼쪽 눈은 각막 이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수술 환경은 한국과 참 달랐습니다. 이식 수술 같은 큰 수술을 하고도 한 시간만 회복시킨 뒤 바로 퇴원해야 했습니다. 집까지 트래픽을 뚫고 2시간을 운전해 돌아오는 길, 피 섞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아내가 건네준 작은 신앙 서적 속의 한 줄이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글귀는 가라앉았던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질병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실히 의사를 만나고 치료받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구나.' 그 믿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경제 구조 속에서, 제 아내는 저를 따라 미국에 온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적 풍요를 다 끊어내시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연단은 호되고 모진 것이었습니다. 밤 청소를 하며 이웃들의 행복한 저녁 식사 모습을 부러워하던 5년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이끄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여기던 오해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영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 길을 따라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능력과 성공을 좇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첫 눈 수술을 잘못 받아 지금 고통받는 것처럼, 신앙도 첫발을 잘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인생의 고통은 환경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길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치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 잘못된 판단, 고난까지도 성령님은 간섭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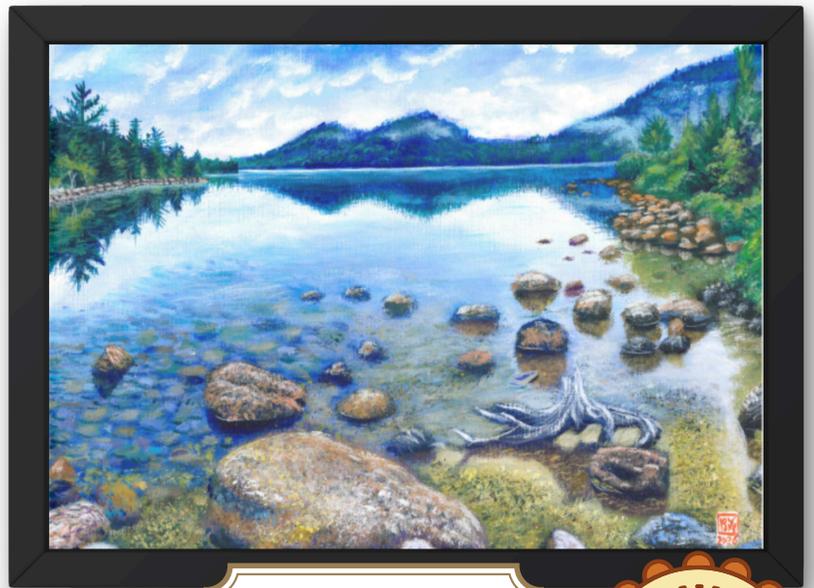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혹독하게 다루실지라도 그것은 고치시고 살리기 위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이지만, 제 인생의 깨달음을 통해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자매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석기 목사 드림

ONESIMUS'S
1ST
ART 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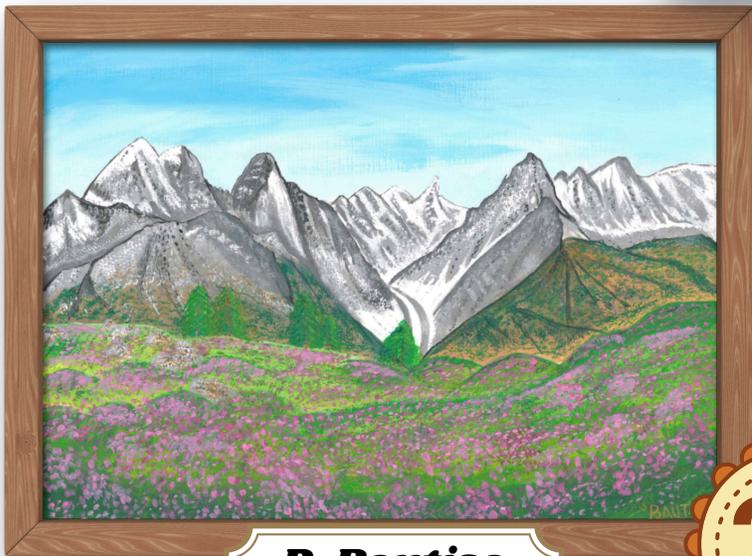
And the
Winner
is...



B. V. Nguyen

무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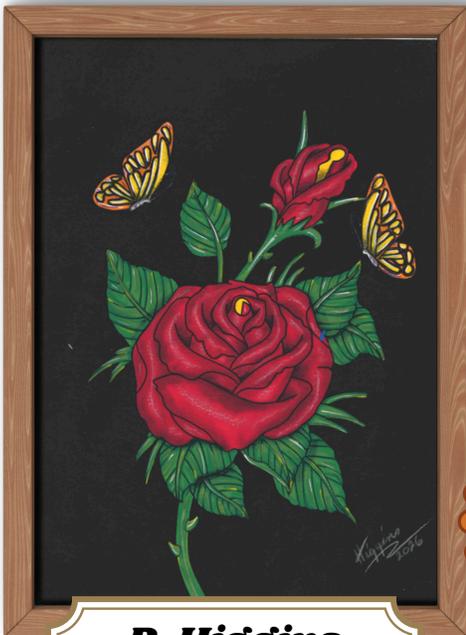
1ST



R. Bautisa

이 땅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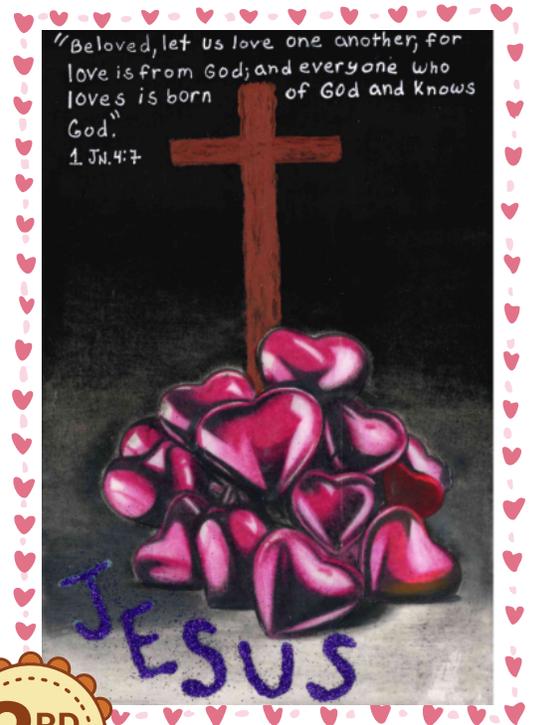
2ND



R. Higgins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

3RD



3RD

M. Morales

요한일서 4:7

장려상



J. Belt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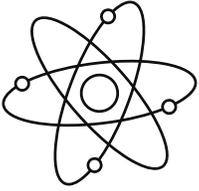
J. Beltran



D. Kong



M. Guzman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믿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선택까지 변화시킵니다. 과학 또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 줍니다.

1.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기도와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두려움과 불안을 잠잠하게 하며,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2.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스트레스를 줄여 줍니다.

자신이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마음속의 압박을 줄여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3.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나 가장 큰 실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4.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절제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며, 분노나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5.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소망을 세워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힘든 날들과 긴 형기,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나아갈 힘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6.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치유와 회복을 돕습니다.

믿음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시편 34:18)

7.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감옥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벽은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9)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임재, 그리고 힘을 약속합니다. 내면의 자유는 외적인 자유보다 훨씬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